

수출기업 수요, 亞 신시장으로 이동 고용·규모 따라 애로사항 제각각

무협, 해외 비즈니스 수요 실태조사 美·베트남·인도 순으로 변화 전망 실적 등 따라 파트너 고려 國 달라 향후 선호도 높은 국가 지원 확대 역조현상 방지... 부담 경감 필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비즈니스 수요가 베트남 등 아시아 신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출기업의 애로가 고용·수출 규모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업 대상 수출 지원 사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무역협회의 '해외 비즈니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5대 해외 비즈니스 대상국은 현재 미국(26.6%), 중국(15.1%), 일본(10.8%), 베트남(7.4%), 독일(2.9%) 순에서 향후엔 미국(22.9%), 베트남(8.7%), 인도(7.3%), 중국(7.0%), 일본(5.2%) 순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 10일~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됐으며 906개사가 응답했다. 응답 기업 중 수출 실적이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34.4%였다.

향후 중점 비즈니스 대상국을 묻는 질문에 아시아 주요 신흥국이 강세를 보였다. 1위 비즈니스 대상국은 여전히 미국이었으나, 응답비율은 3.7%포인트 하락했다. 미국에 이어 베트남이 현재 4위에서 2위로 올라섰고, 인도(3~6), 인도네시아(10~7), 말레이시

미국(26.6)	중국(15.1)	일본(10.8)	베트남(7.4)	독일(2.9)
인도(2.3)	러시아(2.2)	대만(2.0)	싱가포르(1.7)	인도네시아(1.7)
멕시코(1.7)	브라질(1.7)	태국(1.5)	폴란드(1.5)	말레이시아(1.4)
필리핀(1.4)	아랍에미리트(1.1)	홍콩(1.1)	영국(1.1)	방글라데시(0.9)

응답 기업별로 최대 3개국까지 선택

미국(22.9)	베트남(8.7)	인도(7.3)	중국(7.0)	일본(5.2)
독일(4.1)	인도네시아(3.8)	사우디(3.1)	말레이시아(2.1)	태국(1.9)
영국(1.9)	이탈리아(1.8)	프랑스(1.8)	멕시코(1.8)	러시아(1.5)
싱가포르(1.5)	대만(1.4)	아랍에미리트(1.3)	필리핀(1.3)	호주(1.3)

20위권 신규 진입 및 순위 상승 국가 음영 표시

아(15~9) 등이 새로운 중점 비즈니스 대상국으로 부각됐다.

사우디아라비아(8위), 이탈리아(12), 프랑스(13), 호주(20)가 20위권에 신규 진입한 반면, 홍콩, 브라질, 폴란드, 방글라데시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수출 실적이 큰(1000만달러 이상) 기업은 인도를, 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은 베트남과 중국을 향후 중점 비즈니스 파트너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은 향후 비즈니스 대상국으로 일본과 중국을, 고용 규모가 작은 기업은 베트남을 상대적으로 선호했다.

고용 인원이 많고 수출 실적이 큰 기업일수록 현지 투자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의 해외직접투자의 주된 요인은 해외 대비 높은 국내의 인건비 및 생산비용과 법인세 부담 등 비

용 요인(49.2%)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복수응답)으로는 '현지 바이어·파트너 발굴 어려움'(61.4%), '현지 시장 정보 부족'(40.1%), '상대국 수출입 관련 규제'(38.6%), '무역보험 등 금융 지원 부족'(23.9%), '대금 회수 어려움'(18.1%) 순이었다. 보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향후 해외 비즈니스 선호도가 높은 국가를 타깃으로 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업특성별 수요를 고려한 기업군별 맞춤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 직접 투자의 국내 유입보다 해외 유출이 더 큰 투자 역조현상에 따른 일자리 해외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등 기업 부담 경감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韓, 亞 19개국과 '파리협정' 대응 논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배양 연찬회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10일 아시아 19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배양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13일까지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파트너십(PATPA)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투명성역량배양이

니셔티브-글로벌 지원 프로그램(CBIT-GSP)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내년부터 2년마다 보고서(격년투명성보고서)를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국가 온실가스배출량·흡수량 및 감축목표 이행·달성 현황 등의 정보를 담게 된다.

환경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정보를 국

제사회에 보고한 경험이 부족해 사전적인 준비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독일 정부와 함께 아시아 지역 담당자들의 보고 역량 배양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베트남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9개국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점검 담당자 40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파리협정 아래 강화된 투명성체계에 따른 보고·검토 체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 현황 정보를 보고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고용부, 폭언·폭행 일삼은 더케이텍(주) 적발

총 17건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확인 형사 입건·과태료 부과 등 조치

고용노동부가 10일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일삼은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업체는 대표이사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왔다. 또 직원 채용과정에서 성·연령을 차별한 사실이 확인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000만 원의 임금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며 형사 입건(9건), 과태료 부과(2200만원)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감독 결과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대해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내년 귀농·귀촌 청년층 대상 임대주택 지원규모 3배 증가

농식품부,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 정부 예산안 48억 → 152억 편성 2026년까지 35개소로 확대 예정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귀농·귀촌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농촌 임대주택 지원사업 규모가 올해보다 3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의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48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52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은 농촌 지역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9개소가 선정됐으며, 이 중 2019년도 시범 4개소는 총 123세대 입주가 완료됐으며 2024년 17개소, 2025년 25개소, 2026년 35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농촌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는 지자체 수요가 많고 입주민 만족도가 높

아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이 고려돼 2024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증액됐다. 또, 2024년 8개 신규지구 및 총사업비 단가(80억원 → 90억원) 상승 등도 반영됐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진청, 가루쌀로 생산성 높인 고추장 개발

샘표식품 기술연구소와 연구

장류 제조에 필요한 수입 원료 수급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가루쌀을 활용해 생산성을 2배 높인 고추장 제조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10일 샘표식품 기술연구소와 함께 신품종 가루쌀 '바로미'를 이용한 '100% 국산 쌀 고추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가루쌀은 일반 쌀보다 단단한 정도가 낮아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물 흡수도 빨라 밀가루를 대체할 가공 원료로 재배되고 있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샘표식품 기술연구소 우리발효연구중심과 함께 바로미2의 최적 전처리와 발효 조건을 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바로미2를 2주간 발효해 만든 쌀 발효물을 50% 이상 넣어 100% 국산 쌀 고추장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고추장을 만들었을 때 가공

공정 중 물과 결합해 수화물이 되는 데 걸리는 수화시간은 75%, 발효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 한 해 기준 우리나라 고추장 생산성은 최소 2배 정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루쌀 고추장으로 한식인 제육볶음을 만들었을 때 향미는 다른 국산 쌀로 만든 고추장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양식인 닭봉 구이에서는 누린내를 잡았고, 요리와의 조화성도 높다는 반응이다.

샘표식품 기술연구소 우리발효연구중심 최용호 실장은 "최근 장류 제조를 위한 수입 원료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국산 원료인 가루쌀을 활용한 고추장 제조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진청 발효가공식품과 송진 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산 가루쌀이 고추장 제조에 적합하다는 정보가 확보됐다"며 "앞으로 장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효식품에도 이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고령층 퇴직공제금 청구, 집배원이 돕는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한 달간 시범운영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한 고령층 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청구를 돕기 위해 우체국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제회는 10일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장기간 퇴직공제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로 방문할 예정"이라며 "제도를 안내하고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11일부터 실시된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충족 고지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적립된 사

실 또는 청구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집배원 서비스는 이달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는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간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관련 각종 고지를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왔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본인에게 적립되어있는 퇴직공제금을 알고 청구하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